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일곱 번 용서하고

생명은 아름답다. 신비하고 경이롭다.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움직이는 기적이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천지창조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권리 앞에서 평등하다. 귀천(貴賤)이 있을 수 없고 높낮이가 허락되지 않는다. 절대평등의 다함이 없는 행복과 자유 누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일 수 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을 때 그에 따른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켜야할 사람의 도리는 소홀히 하면서 누려야할 권리 주장엔 메아리가 없을 것이 뻔한 일이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내가 흔들리면 남도 흔들릴 수 있음을 헤아려 살피는 것이 인생의 기본덕목인 배려이다. 배려와 이해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대화를 통해,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흐름을 통해 단절과 결핍을 풀어 가야한다. 나(我)라는 생각과 너라는 생각, 우리라는 울타리의 보호벽을 허물어가야 한다. 틈이 생기면 대화는 멀어지고 대화의 단절이 길면 이해의 결핍으로 적이 되는 세상이다. 가까운 친척도 멀리 있으면 먼 친척이 되어가고 먼 친척도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되는 격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대화로서 다양한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일 터이다. 오해는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곡해(曲解)는 대화의 막힘에서 출발한다. 대화는 입을 통해 문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자한테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대화는 입으로 문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느낌을 담은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짓의 대화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법이다.

흔히 〈천수경〉의 첫 구절인 정구업(淨口業)을 설명할 때 입을 통해 짓는 거짓말(妄語), 기만하는 말(綺語), 두 가지 말(兩舌), 거친 말(惡口)로 4등분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천수경(千手經)〉의 경(經) 명칭이 의미하듯 손이 천 개면 입도 천 개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입은 맛을 분별하는 입이다.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요 팔 다리는 움직이는 입인 것이다.

좁게 보면 신체에 달린 구멍은 모조리 입이요 넓게 보면 온 몸의 팔만사천의 세포 하나, 하나가 모조리 입이 아닌 게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구업(淨口業)의 바른 해석은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三業)으로 좁혀 받아들일게 아니라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이 셋이 아닌 하나로 설명되어야 할 터이다.

손짓 몸짓도 언어요 표정도 언어이다. 예전 사형(死刑)을 집행할 때 집행관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 눈을 가린 사형수에게 자신의 말을 최후의 목소리로 각인 시키는 게 두렵고 께름칙하기 때문이다. 하여, 한 목숨을 마감하는 최후의 언어는 말이 아닌 손짓, 또는 목 짓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웅변일 수 있고 또 다른 언어일 수 있는 것이다. 형사 소송법에서 묵비권이 하나의 권리 행사로 존중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일 터이다. 자, 방향을 바꾸어 조계종단의 숙제로 떠오르는 멸빈자 사면복권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이유야 어떠하던 조계종단에 소속된 종도로서 종헌 종법을 어겨 궤도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한 과보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종단의 사법 기관에서 중징계를 받아 승적도 박탈된 그들이 10년, 20년 넘게 사찰 주변을 떠나지 않고 승복 걸친 또 하나의 스님으로 살아간다면 종단에서는 섭수자비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종헌 종법을 보완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과오에 따른 충분한 형벌은 그동안의 세월로 충분한 것이다. 10년, 2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님을 헤아려 그들에게 수행자로서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자비를 베풀어야한다.

사람이 사람을 벌주되 사형(死刑)까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율장 정신을 되살려 일곱 번 용서하고 아홉 번 기회를 주어야한다. 한 울타리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고개 숙인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진정한 의미의 참 수행자의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율장엔 7번 용서와 9번 기회를 준다
고개 숙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불법 앞엔 스승·제자 따로 없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발심은 선후가 있으나 도를 깨치는 데는 선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행자의 공부를 두고 한 말인데 공부를 먼저 시작했다 해서 반드시 먼저 깨닫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혜능 선사 같은 경우 절에 온지 8개월 만에 오조로부터 법을 전해 받아 육조가 되었다. 그것도 계를 받아 스님이 되기 전에 법을 전해 받고 나중에 인종 법사로부터 계를 받으면서 인종 법사에게 법을 전해준 결과가 되기도 했다.

상좌가 은사보다 먼저 깨달은 경우도 있었다.

중국 당나라 때 신찬(神贊) 선사가 복주(福州)의 고령사(古靈寺)에서 은사 계현(戒賢) 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절을 떠나 백장 선사 회상에서 안거를 나고 다시 은사가 계신 고령사로 돌아왔다. 은사가 물었다.

"여기 안 있고 밖에가 무엇 하였느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은사가 목욕을 하면서 신찬 선사에게 등을 밀어 달라 하였다. 등을 밀던 신찬 선사가 이런 말을 했다.

"법당은 좋고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好好法堂 而佛不靈)

은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자 "부처가 영험이 없는데도 방광을 하는구나."(佛雖不靈 也能放光)

하루는 또 은사가 창밑에서 경을 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벌이 한 마리 방안에 날아 들어와 창문에 몸을 부딪치고 있었다. 이때 신찬 선사가 즉흥시를 지었다.

열려 있는 문으로는 나가지 아니 하고
(空門不肯出)
창에 부딪치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投窓也大痴)
백년을 낡은 종이 뚫은들
(百年鑽古紙)
어느 날에 생사 벗어날 기약 있으리오.
(何日出頭期)

이에 은사가 경전을 덮고 물었다.

"네가 행각하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저번에 목욕할 때도 그렇거니와 말하는 게 수상하구나."

"백장 화상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대중에게 알려 모이게 하고 신찬 선사에게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할 것을 청했다. 신찬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법을 설했다.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밝게 비쳐 멀리 육근(六根), 육진(六塵)의 경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참되고 한결같은 그것이 통째로 드러나 문자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오염됨이 없어서 본래 저절로 완전합니다. 다만 허망한 인연을 여의면 곧 본래 그대로의 부처입니다."

(靈光獨耀 逈脫根塵 體露眞常 不拘文字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

은사가 감동하여 말했다. "내가 어찌 늘그막에 와서 이런 지극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청하여 법문을 듣고 감동했다는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지리산 칠불사에는 서상수계(瑞祥受戒)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조선조 순조 때인 1826년에 대은 낭오(大隱朗悟) 선사가 칠불사에서 서상수계를 성취했다. 〈범망경〉에 의하면 천리 안에 계를 줄 스승이 없으면 부처님께 기도하여 서상을 받으면 계체(戒體)가 성립되어 부처님께 계를 받은 것이 된다고 하였다. 영암 도갑사에 주석하던 대은 선사가 서상계(瑞祥戒)를 받기 위하여 스승인 금담(錦潭) 스님과 함께 칠불사에 와 용맹기도를 하였다. 기도 중에 부처님 미간백호로부터 한 줄기 상서로운 광명이 비쳐 나와 대은 스님의 정수리에 꽂혔다. 이렇게 해서 상좌인 대은 스님이 먼저 서상계를 받고 스승인 금담 스님이 상좌로부터 그 서상계를 전수 받았다. 이리하여 그 계맥이 대은낭오, 금담보명(錦潭普明), 초의의순(草衣意恂), 범해각안(梵海覺岸), 선곡율사(禪谷律師), 용성진종(龍城震鐘)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동계맥(海東戒脈)이라 한다.

부처님 법의 진원지, '眞空' 마음자리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⑪ 무념의 법

153억 년 전 하나의 티끌이 폭발하여 이루어진 우주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보고 있지 않으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무관하게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보존의 법칙에서 나무 한 토막을 불에 태웠을 때, 나무토막이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양만 열로 바뀐 것입니다. 나무토막이 열이고, 열이 나무토막이며, 나무토막과 열이 에너지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된 모양이고 참된 마음입니다.

언어와 문자로 전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진공의 마음자리를 부처님께서는 삼처(三處)에서 전하셨고, 역대 조사들도 오직 이 마음자리를 비유(比喩)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1,700 공안(公案) 또는 화두(話頭)라고 합니다. 이 화두 가운데 공부인들에게 널리 실참 되는 것이 '이뭣고'와 무자(無字) 화두입니다.

남악 회양 선사가 육조 혜능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혜능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데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혜능 선사가 또 물었습니다. "시십마(是什), 습마물(什 物)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온 물건이 무엇이냐?"

이에 대답을 못한 남악 회양 선사는 8년 동안 부단한 수행을 거친 뒤 혜능 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닦고 증득할 것이 있는가?"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염할 수는 없습니다."

혜능 선사의 이뭣고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서 있는 것이 아닌 진공의 이 마음자리를 물은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오염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물건도 있을 수 없는 청정한 진공 가운데서 없는 것도 아닌 항하사와 같은 묘용이 있습니다. 그래고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라고 회양 선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석두 선사에게 도착한 오예 스님은 큰 절을 올리고 선사의 곁에 섰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강서에서 왔습니다" "공부는 어디에서 했는가?"

순간 오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옷깃을 뿌리며 돌아섰습니다. 법당 문을 막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여보게!" 하는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을 돌리자 석두 선사가 손바닥을 세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예 스님은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석두 선사의 '이뭣고'는, 선사의 부르는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분별의 생각이 끊어진 진공의 마음자리를 안 것입니다. 오예 스님은 순간 일체가 구족하여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과 조사 스님들의 천칠백 공안은 이 마음자리를 가리키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 그리고 생각으로는 이 마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는 생각으로, 생각은 언어와 문자로 서로 대상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오직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끊어진 무념(無念)이 되어야 합니다.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음이요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삿된 생각은 있음과 없음, 좋아함과 싫어함, 선과 악, 생과 사 등 분별의 이분법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고, 바른 생각은 이와 같은 삿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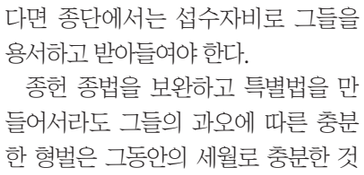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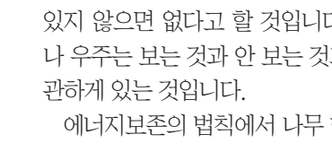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대출력 믹싱앰프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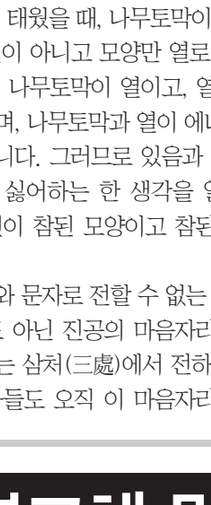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02)733-1959
720-1836